

경제

“뺏속까지 보여줘야... 매출 늘지요”

유통업계 ‘신뢰 마케팅’ 붐물

‘수산물이력제’ ‘품질실명제’ 등 도입 확산

CCTV로 주방 내부까지 손님들에 공개도

“뺏속까지 보여 줘야 팔린다.” 요즘 광주·전남지역 유통·식품업계의 화두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의 벽을 뚫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너도 나도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CCTV를 통해 주방까지 보여주는 음식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소통&신뢰 마케팅’이 붐물이다.

광주·전남에서는 20일 현재 굴비, 감, 납치, 미역, 다시다, 전복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수산물업체 46곳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다. 영광에서 참여한 굴비 업체만도 10곳이 넘는다.

장흥군은 이달 초 13개 양식장과 공동으로 영농법인을 설립, ‘건강납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조만간 납치에 전자태그 칩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납치의 생산부터 유통과정을 자세히 보여줄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굴비의 생산·어장·유통과정을 바코드로 기록한 ‘굴비 이력제’를, 신세계 이마트는 채소, 생선 등 500여개 신선식품에 포장·성분·생산능가법 등을 기재한 ‘품질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축산물 판매장에서는 지난 5월부터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해당 쇠고기에 대한 주요 정보를 빠짐없이 보여주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음식점들도 ‘불결한 주방’, ‘음식 재사용’ 등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주방을 공개하고 나섰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숯불구이전문점 ‘어울림’은 이달 초 대형 TV를 통해 주방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어울림 관계자는 “손님들이 음식 조리부터 잔반처리 과정까지 다 볼 수 있어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에서도 지난 2월부터 매일한우순천점, 명지점, 태화점 등 유명 음식점 9곳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해 주방 내부를 손님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신뢰마케팅은 비단 광주·전남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서울우유는 지난 14일부터 우유 제품에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표기하는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고, 농심도 신라면에 한해 원료·공정·생산 정보를 기록한 전자태그(RFID) 기반의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도 두부, 콩나물 등 15개 제품에 ‘생산이력 정보 제도’를 시행, 홈페이지에서 제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공산지와 품질, 수매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트렌드연구소 관계자는 “생산자는 물론 유통 전 과정의 정보를 담은 이런 신뢰마케팅을 일종의 ‘태그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신뢰확보가 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호생명 마침내 팔리나

내달초 칸서스자산운용과 4천억 계약 체결할듯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칸서스자산운용이 다음달 초에 금호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호생명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칸서스자산운용 김영재 회장이 금호생명 매각절차를 논의중으로 이르면 다음달 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칸서스자산운용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구조조정과 관련, 시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해 매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도 “칸서스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칸서스가 매우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칸서스측은 금호생명을 약 4천억원에 인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서스는 연가금 1~2곳과 은행, 증권사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PF)로 금호생명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금조달(펀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칸서스와 접촉하는 연가금 등 주요 투자자들이 구주와 신주 비율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금액이나 조건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관측이다.

금호생명 인수자는 신주 비율을 높여 인수자금을 회사 내에 남겨두기를 희망하는 반면 매도자는 구주를

처분해서 매각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금호생명은 3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31.47%이다.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2천190억원을 조달해도 4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4.7%로 올라갈 뿐이어서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호생명은 지난해 증시 상장을 추진했으나 그룹 유통성 위기가 터지고 증시 여건이 악화돼 9월에 매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초기에는 세계 유수의 보험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대부분 발을 빼 매각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으며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초기에 1조원설이 나오던 금호생명의 몸값은 크게 떨어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코스피 38P 급등 ... 10개월來 최고치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1,470선 안착

코스피지수가 국내의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에 단숨에 1,470선으로 뛰어오르며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째 하락하며 1,250원으로 내려앉았다.

20일 국내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38.41포인트(2.67%) 오른 1,478.51로 거래를 마쳐 지난해 9월 26일(1,476.33) 이후 처음으로 1,470선을 돌파했다. 장중 1,480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 상승폭과 상승률 모두 지난달 10일의 43.04포인트(3.14%) 이후 가장 컸다.

이날 지수는 7.75포인트(0.54%) 오른 1,447.85에 거래를 시작해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며 1,450선과 1,460선, 1,470선을 별다른 저항 없이 잇따라 돌파했다.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 외국인도 4거래일째 ‘사자’를 이어

간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5천196억원, 기관이 3천903억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4천200여억원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증권이 5.14% 급등했고 전기·전자(3.49%)와 운수·장비(3.44%)도 상승폭이 컸다.

코스닥지수도 7.75포인트(1.60%) 오른 493.62로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490선을 회복했다.

주가 강세에 따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30원 내린 1,250.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249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당국의 개입 우려 등으로 낙폭을 다소 줄였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단지안에 고시원 못 짓는다

연말부터 ... 성능등급 표시 확대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주택단지내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단지안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단지안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고시원은 주택단지내에 설치

가능한 부대·복리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숙박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도 2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홈네트워크, 외부소음(2개항목), 피난안전(3개항목), 방범안전(2개항목) 등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연필수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10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는 20일 광주 신영파크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 기업활동을 펼친 여성기업인들에게 상을 수여 격려했다.

이은미기자 mjna@kwangju.co.kr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개발 가능

공공기관과 참여지분·역할배분 등 결정

내년 초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손잡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이 허용되고 민간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이나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 시행자는 참여지분 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필수

중소 10곳중 4곳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사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꼴로 현재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7%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 수는 대상 기업에 고용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2천897명)의 12.1%인 347명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업 중 1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의 52.3%가 정규직 전환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20인 미만 기업은 87.3%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연필수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대권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Table with 4 columns: 소세지, 대지/건물, 감평가, 회자가,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prices and details.

Table with 4 columns: 아파트/빌라, 명칭, 평, 용적률, 감평가, 회자가, 비고. Lists apartment and villa listings with floor area and price.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중)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011-602-2532 (광주은행 산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